

동구-화순군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뭉친다

문화관광프로그램 공동개발 전광판 영상송출 홍보 강화 축제·관광명소 연계 '시너지'

광주 동구가 화순군과 손을 잡고 지역 특성을 부각시킨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동구는 화순과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행사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를 모으고 있다.

먼저, 홍보 강화에 방점을 뒀다.

동구는 청사 내 보유 중인 전광판 8곳과 화순군청·의회·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된 전광판 3곳에 각각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 등 역점적인 홍보 사안을 담은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동구민은 물론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효과를 높여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추억의 종장축제와 화순 고인돌봄·가를 꽃축제 등 지역 대표축제, 동명동 카페거리와 고인돌공원 등 관광명소를 활용해 외지인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선제적 행보에 나

선다.

매년 축제 기간 각 지자체마다 관광지를 연계한 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구는 '東(동)네라이프 생활관광'과 화순 '적벽 버스투어'를 연계해 관광·숙박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안내소도 운영한다.

청소년들(초·중·고생)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인문교실, 인문 골든벨 대회 등이다.

문화·인문시설 대비 체육시설 수요가 낮은 점을 감안해 화순 파크골프장, 국공

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드론 축구장 등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인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향후 건립 예정인 화순 흥수조절지 파크골프장(81홀)과 오는 2027년 완공 목표인 '동구 수소도시 가족테마파크' 이용에 관한 협력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입택 동구청장은 "광주 동구와 화순군은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와 경제를 공유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양 지자체 간 강점과 특색을 살려 협력한다면 주민 복리 증진 등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song@jilbo.com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 지원 북구, 지역내 기관·단체

광주 북구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와 함께 가용 가능한 역량을 결집,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16일 매곡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지원기관·단체 사업공유 설명회는 지원기관별 사업들을 소상공인 단체와 적극 공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각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북구가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과 협업체를 추진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북구청 △광주전남 중소기업진흥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시 및 5개 자치구별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북구는 기관·단체 등과 구축한 소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

'양림문화센터' 전시작가 모집 남구, 30일까지 개인·단체 접수

광주 남구는 양림문화센터를 문화·예술 작품 체험과 휴식 등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 작품전을 개최할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지역작가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을 지원하고, 양림동을 찾은 방문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양림문화센터 전시작가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양림문화센터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로, 지하와 2층에 각각 47평과 24평 크기의 전시실을 두고 있다.

지상 1층은 양림동을 찾은 방문객을 위한 거점예술여행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양림문화센터 전시작가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평면과 입체, 복합, 체험 프로그램 등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남구에 거주하거나 관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개인·단체와 지역민과의 협업 전시 및 대중문화 행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작가 등을 우대한다.

공모에 선정된 작가는 전시실을 무료로 사용하며, 최대 한달간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정성아 기자



'범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 발족 서부경찰 여성청소년과

광주 서부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6일 서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16개 민·관·경이 참여하는 '범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기능별로 운영해 오던 범죄피해자 보호업무 여성청소년과 기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두텁고 내실 있는 보호·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협의체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종합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특성에 맞는 위원들을 소집하고 사례회의를 개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강주비 기자



광주 서구에 조성된 맨발로(路)를 김이강 서구청장과 시민들이 함께 걷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맨발 성지' 광주 서구, 맨발로 7.7km 조성

24곳...공원·학교 운동장 활용

광주 서구가 총 길이 7.7km의 맨발로(路)를 완성했다.

서구는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내걸에 맨발로'를 전체 18개 동 24곳에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2022년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금호·쌍학어린이공원을 비롯해 10개 동 14곳에 맨발로 및 황토체험장을 조성했다. 풍암동 금당산에도 4.2km 맨발로가 조성됐다. 올해는 푸름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맨발로를 조성했고 연말까지 농성광장, 효사·운천어

린이공원에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공원 외 양동·효광·광주서·주월·금당초등학교와 광덕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세족장과 안내시설을 4월 중 설치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용률이 높은 상무시민공원 맨발로는 야간 이용객들을 위해 안심 조명을 설치하고 맨발로 폭을 2m로 확장해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맨발로 내 이물질 제거 및 배수로 정비 등 유지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 계절별로 노면 그르기와 다짐, 마사도 보충작업 등도 실시한다.

맨발걷기 교육, 동호회 운영, 맨발걷기 챌린지 등을 통해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생활화에 힘쓰고 있다.

서구는 오는 5월11일 금당산 일대에서 광주·전남 최초로 '제1회 도심맨발축제'를 개최한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맨발로 청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대상 '맨발로 키움학교'를 비롯해 걷기와 요가, 명상을 결합한 맨발치유 프로그램,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맨발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민들이 '맨발의 정춘' 시절을 즐기며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남구, 1인 가구 호신용품·밀키트 지원

광주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선정 범죄 예방·불규칙 식습관 개선 등

광주 남구는 오는 6월부터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품과 식생활을 개선하는 특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17일 남구는 광주시 주관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해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나는 홀로, 걱정 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는 홀로, 걱정 제로' 특성화 사업은 2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먼저 오는 6월부터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호신용품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남구는 관내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뒤 사업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호신용품 스프레이를 비롯해 경보기, LED 안전

호루라기, 송장 지우개 등 호신용품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특화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18세 이상 1인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등 취약 가구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식사 밀키트와 김장 키트 등 식재료를 지원하며, 남구 가족센터 공유주방에서 진행되는 '혼밥 도우미' 요리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성아 기자



중장년 지원 업무협약 서구-빛고을50+센터

광주 서구와 빛고을50+센터가 중장년 인생 2막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들을 위해 △정보교환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구성 △일자리기관 발굴 및 시설 공유 △인생2막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에서 추진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 교육과 협업체를 통해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 확대 광산구, 민관 협업 운영

광주 광산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민간형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민간 카페 1곳을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로 지정 '달고나' (달리다 고단하면 나에게로 와)라고 명명해 운영 중이다. 접근성·편의성을 갖춘 휴식 공간을 제공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에는 사업을 확대해 신규 쉼터로 편의점 32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카페와 편의점을 통틀어 민간형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 53곳이 운영된다. 쉼터와 연계해 추진하는 안전, 복지 등 지원 사업 실효성도 높인다. 김상철 기자